

제주지역 청년농업인 매년 큰 폭 감소

도내 청년농 전체농가의 2.8% 불과... 지속 줄어 농촌 고령화 심화 등 부작용... 육성·지원책 절실 도 "청년후계농 육성계획 통해 융복합 인재 양성"

제주도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농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00여 가구가 넘던 도내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지난해 800여 가구로 4년 새 20%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18가구(전체농가의 3.3%), 2016년 1072가구(3.2%), 2017년 895가구(2.8%),

2018년 863가구(2.8%), 2019년 809가구(2.6%)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2015년 1만3669(40.8%), 2016년 1만5316가구(46.3%), 2017년 1만5698가구(48.8%), 2018년 1만5647가구(50.1%), 2019년 1만5294가구(49.2%) 등으로 도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집중육성 품목인 감귤농업의 경우 청년농업인의 감소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도내 감귤 청년농업인은 733가구(3.5%)에서 2019년 484가구로(2.4%) 4년새 33%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농가는 2015년 8494가구(41.1%)에서 2019년 1만206가구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청년농업인의 비중이 날로 감소하면서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업인 육성 등 정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매년 청년후계농 육성계획을 수립해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도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민, 관, 학을 연계한 영농실습과 장

업지원 사업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도입을 통한 농업분야의 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 경영인을 선발해 추가 용자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며, 기술고도화·규모화를 통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청년농업인이 제대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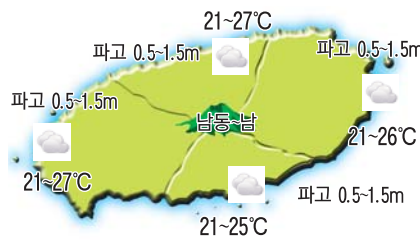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5일 금요일 음 5월 16일 (8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30%	30%
30%	성산 20%	20%
20%	고산 20%	20%
20%	서귀포 20%	20%

주간예보

날씨	구름 많음	21/27°C
미래	흐리고 비	22/26°C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C 내외, 낮 최고기온은 25-27°C로 전망된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도로 미끄러움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5:25	달뜨기 20:35
해질미 19:48	달지기 05:27
물때	간조 05:26
	17:12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소통지원관 김방수·감사관 김명기 씨 발령 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80명 인사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에 김방수 지방교육행정사무원, 감사관에 김명기 사무관이 각각 승진·전보 발령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7월 1일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24일 발표했다.

>>승진프로필 13명·인사명단 14명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급 이상 16명을 포함한 총 80명 규모로 최소화 했다.

송성한 소통지원관은 제주시교육 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번속회 감사관은 제주교육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달말 윤영이 종료되는 교육자치추진단의 강상훈 단장, 홍태유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정운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능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드림타워 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검찰 송치

제주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3000㎡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드림타워 내 쇼핑몰 매장 바닥 면적이 30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

유로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이 3000㎡가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에 따르면 등록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강민성기자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진상조사 나서라”

공동대책위 어제 회견서 촉구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던 A(50대)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노동부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해 온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생전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실은 유족을 비롯해 직장동료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사장인 B씨는 새마을금고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A씨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 책임자 퇴진 및 처벌 등 고용노동부가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B씨와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민성기자



“독도, 우리가 지켜요!” 24일 제주시 초원초등학교에서 독도동아리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한 독도전시회가 열렸다. 독도동아리 어린이들은 이날 전시회에서 독도 사진·영상 시청에 이어 독도경비대에게 엽서를 쓰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강화민기자

경로 미상 등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이달만 200명... 누적 확진자 1242명

제주지역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5시 까지 추가 확진자 4명(1239-1242번)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1239번은 도민

으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로 미상' 사례다.

이로써 이달 들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2명으로 늘었다.

1240번과 1241번은 서울 거주자로, 관광 목적으로 각각 지난 22일과 지난 19일 입도했으며 관악구·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됐다.

1242번은 제주도민으로, 1197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지난 14일부터 자가격리를 이어 오다 두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강대혜기자 dhkang@ihalla.com

축축
CONGRATULATIONS

취득
의학박사 학위



지승택
부 : 지덕설 (재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해동이스콘(주) 대표이사)
모 : 정혜숙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주지씨 현감공연과
황노 할아버지 자손일동**

축축
CONGRATULATIONS

수상
대통령 표창




이태영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대통령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방사모 회원일동

축축
CONGRATULATIONS

승진
사무관



김민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19회 동창회

축축
CONGRATULATIONS

등단
시인



이종실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의 지난해 수필 시인 등단에 이은
시인 등단(제57회 한국공무원문학 시부문
신인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라초등학교 제15회 동창회 회원 일동